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목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중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3 총현교회

THE WEEKLY CHOOH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다 자세히 보는 2003년도 제2차 청지기운전 메시지(3)

관계와 같이 부름이 되고 (딤후 4:6-8)

바울의 마지막 인생 여정

바울의 마지막 인생 여정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가문에서 어려서도 그는 가난하고 외로웠으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딤후 4:10, 16). 죄인들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복음을 외치며 살았던 그 기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배대와 투옥과 무서운 칼날뿐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늘 현실적인 성공과 축복만을 탐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행편을 보고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도록 헌신한 사람의 결과가 겨우 이 정도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자신의 그런 행편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았고 이미 걸어진 믿음의 길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확신과 소망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현실적인 보상을 탐하지 말라

청지기의 삶은 우리들이 추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그 보상이 늘 실질적인 축복과 성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지막 삶을 보십시오. 회심 이후에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교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부유해지며 건강해지고 자신들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을 깨닫고, 혹시 바울과 같은 행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끝까지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순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순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불행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오히려 바울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행복과 기쁨, 만족과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동역자들의 안부를 묻고, 겨울을 나기 위한 외투를 부탁하며, 말씀 연구를 위해서 특별한 가족 중이에는 책을 꼭 가져다 달라고 하는 등, 죽음을 앞둔 사람답지 않게 바울은 자신인 일상생활을 성실히 행했습니다(딤후 4:11-13). 여러분, 현재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라도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에 눈앞에 다가가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권임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당장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청지기의 삶은 바로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히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 십자가 때문에...

"관계와 같이 벌써 내가 부름이 되고"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통과 절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가 될 수 있음을 알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관계'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의 죽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랐습니까? 죄에 대한 행편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저 고통스럽고 두려운 육체의 죽음이 이제는 고귀한 희생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던 범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 제사(롬 12:1)로 드려질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는 고통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죽음마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관계'와 같은 거룩한 희생 제사로 드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절망에 떠난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청지기의 삶은 늙어서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맡길 때,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최후의 행복한 여행

또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떠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단지 그들이 처하여 있는 장사나 모습이 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고 썩어질 몸을 떠나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여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떠나는 안전한 여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죽음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 소망의 죽음

바울이 이처럼 두려움 없이 죽음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입니다(딤후 4:7). 또 그에게 말하지 거룩한 보물인 믿음을 잘 간수하였고 이제 그것을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딤후 1:14, 13:16). 수없이 많은 방패가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없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행 20:24).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소망과 하신 가운데 죽음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면,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소중히 하지 않고 그 믿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는다면, 죽음 앞에서 결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요 21:22).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또 도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 없으면 장래에 대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오히려 불행히 여긴 사람들

잔인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조금도 불행히 여기지 않았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간 거룩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데바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키로 갔고 그리스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탈라티아로 갔고"(딤후 4:10). 이들은 과거 한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지만 현재는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중간에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말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자기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나라의 안전과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싸움 의지를 잃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도 우리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게 되면 선한 싸움을 그만 두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를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에게 주어지는 참된 보상

바울에게는 이미 달려온 믿음의 길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있었지만, 장래에 있을 영원한 승리를 내다보는 기쁨도 함께 있었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딤후 4:8). 하지만 바울이 기대한 면류관은 인간의 노력이나 투쟁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의로 얻는 면류관이었습니다(빌 3:8-9, 롬 1:16-17).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하고 그 의를 완성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의 것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결을 깨달은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선한 청지기들에게 주어질 참된 보상은 바로 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소망과 확신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으며,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까요? 대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신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시겠습니까(골 3:20)?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소망 중에 대할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1)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고 죽음 앞에 서서는 잔잔한 소망의 밑에서 장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주님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승리를 맛볼 수 있으며, 죽음 너머 영원한 세상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십시오.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요, 소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오직 이 길뿐입니다.

WHOEVER

“WHOEVER

WILL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Romans 10:13)

This short and succinct statement sums up the entire gospel. It reveals the simplicity of God's grace. Everyone who calls on Jesus Christ will be saved. Truly, our part is easy! All we have to do is call on the Lord Jesus, and in turn, He saves us. It's utterly amazing and absolutely true. As today is Thanksgiving Sunday, many Christians will give their once a year thanks to the Lord for things such as family, food, health, safety, wealth, etc... Sadly, this limited focus tends to center on earthly blessings. Thanksgiving concerns the gospel. It's about, "whoever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Let's concentrate on the heavenly, not earthly, blessings we receive from the Lord.

The gospel is a heavenly blessing. Even the Old Testament speaks clearly about it. There are numerous references within its pages. In particular, Isaiah 28:16 tells us,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God, 'Behold, I am laying in Zion a stone, a tested stone, a costly cornerstone for the foundation, firmly placed. He who believes in it will not be disturbed.'" Here, God promised to bring a foundational, tested, and costly stone to Zion. Peter, one of Jesus' top disciples, elaborated the significance of this Old Testament Bible verse in 1 Pet. 2:4-8. He explained that Christ is the stone, the living stone, "which has been rejected by men, but is choice and precious in the sight of God" (v. 4). He clarified that Christ is the precious cornerstone, "and he who believes in Him will not be disappointed" (v. 6). He also mentioned that for those who disbelieve, Christ is the rejected stone,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v. 7), and the stumbling stone, "a rock of offense" (v. 8). Indeed, the heavenly and precious value of Jesus is for those who believe, and those who believe call on His name.

Now, let's go back to Romans 10:13 again,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The most blessed people are those who call on Jesus. Often times we don't realize just how blessed we are. Sure, we call Jesus Lord, but do we really understand how privileged and fortunate we are? Many times, we forget. We start to look at God's blessing with worldly eyes. Today's Bible verse clearly brings us to the gospel. It actually shows us just how simple salvation is. Calling Jesus' name is not hard. There's no excuse, no room for evasion on this matter. An innocent child or uneducated adult can call Jesus. A poor or sick person can call Jesus. Isn't it wonderful that whoever calls on Jesus can receive heavenly blessings? Isn't that the meaning of thanksgiving?

The Gospel of Matthew gives a fine example of what happens when we call on Jesus. As Jesus was walking on water toward His disciples' boat, Peter called out, "Lord, if it is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Mt. 14:28). Jesus said, "Come!" And Peter got out of the boat, and walked on the water and came toward Jesus. "But seeing the wind, he became frightened, and beginning to sink, he cried out, 'Lord, save me'" (Mt. 14:30)! Peter just called the Lord's name. He simply said, "Lord, save me". This is the shortest prayer recorded in the

Bible, but it is still the gospel. Jesus immediately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ok hold of Peter. He told him,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Don't doubt the gospel because of its simplicity. It's power comes from the heavenly Lord.

My dear friend, do you know the power of our Lord? He is all-powerful! He is the Creator God. Have you seen the sun, moon, stars, and clouds in the sky? Have you seen the waves of the oceans or the ripples of the rivers? Have you seen the variety of trees, plants, and flowers on the earth? Our Lord created all of it. Do you know how He did it? He just spoke it into existence. He did it with just His words. This Almighty God loves you. Do you know how much He loves you? He has given you everything. All He asks is that you call His name. How wonderful is that? He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like Peter's body falling in the sea, to call His name and be saved. This is not a theory or hypothesis to argue or reason over. This is reality! When you just call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Jesus", when you do just that, you get the result of the gospel—you get salvation.

The gospel saves humans from the penalty of sin, which is death. When you call on Jesus, you get saved from sin,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being justified as a gift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which is in Christ Jesus" (Rom. 3:23-24). In Christ, we are free from the penalty of sin and the sting of death. This means that when you call on Jesus, the outcome of the gospel will empower you, "But now having been freed from sin and enslaved to God, you derive your benefit, resulting in sanctification, and the outcome, eternal life" (Rom. 6:22). Jesus not only justifies you at the throne of God, He also sanctifies you, makes you holy with His indwelling Holy Spirit. This power of the gospel brings life, eternal life.

When you call Jesus' name, what is the scope? The range is "whoever". In other words, everyone or all who call on Jesus receive salvation. Paul became an apostle for the Gentiles, not the Jews. He plainly said, "For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Jew and Greek; for the same Lord is Lord of all, abounding in riches for all who call on Him" (Rom. 10:12). Amen. Can you see how simple the gospel is? All you have to do is call. Do you call on Jesus? Do you realize how often Christians call upon the names of presidents, chairpersons, famous people and institutions, political and religious leaders, doctors and lawyers, and even friends and family, instead of Jesus? Please call Jesus only. Paul reminds us, "For I determined to know nothing among you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1 Cor. 2:2).

Today is a wonderful day. It's Thanksgiving Day. Family and friends come together to rejoice in salvation. We all call upon His name. We are free from the power of sin. Our scope is "whoever". I hope that you include the gospel in your thanksgiving, making it the foundation and focal point of your heart. What wonderful grace God has given us! Let's praise and worship the Lord, the Grace of God. Let's call on the name of Jesus! 🙏

다움주일교

누구든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짧고 간단한 이 말씀은 복음의 요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단지 주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주십니다. 이것은 지금껏 놀라우면서도 절대적으로 참된 진리입니다. 오늘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기에 맞추어 일년에 한 번 드리는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그들은 한해 동안 가족이 모두 평안하고 양식이 풍족하며 건강하고 안전하며 다 잘 살게 된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기에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그 폭이 너무 좁고 그것마저도 현실적인 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복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라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인해 감사하되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에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가?

복음은 하늘의 복입니다. 구약 성경도 복음이 하늘의 복임을 선포하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이것과 관련하여 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조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조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결하게 되지 아니하리라”(사 28:16). 여기서 하나님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조 돌’을 시온에 세우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는 베드로로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앞의 구약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돌, 곧 산 돌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와”(4절).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시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6절 참고). 또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버린 돌 곧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7절)이시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8절)이시라고도 말합니다.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하고 보배로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오직 그를 믿는 자들이요, 오직 그를 믿는 자들만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 가장 복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복권과 행복 가운데 있는지 정말로 깨닫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유나 핑계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전한 이원이나나 배후지 못한 여론도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늘의 복락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마태복음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좋은 예를 통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주여 만일 당신이 나를 명하시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마 14:28b)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라”하고 허락하였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만 발판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순간부터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

는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른 것뿐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3절). 복음이 단순하다는 이유로 복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거기에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 별과 구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다에 이는 파도와 강물의 물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땅 위에 있는 나무와 식물과 꽃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주님은 단지 말씀들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단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입증될 필요가 없는 이혼이나 가설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거나 하면, 여러분은 복음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복음은 죄의 형벌, 곧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3,24).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형벌과 사망의 쓰레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복음의 결과로 여러분에게 관능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의의 길에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롬 6:22).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을 의롭다하시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이 능력은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리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받으시도다”(롬 10:12). 아멘. 복음이 얼마나 단순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단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주 예수님 대신에 대기업 회장들, 의장들,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의사들, 법률가들, 심지어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매”(고전 2:2). 오늘을 평강히 맞이하십시오. 오늘을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과 교회에 주께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에 여러분의 감사 제목 속에 복음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감사의 기쁨과 초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제 다함께 은혜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합시다. 다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합시다. **AMEN**



김성관 목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롬 10:13)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1월 3일(월)~11월 12일(수)	G	15교구 1지역	최호일
11월 4일(화)~11월 15일(토)	G	11교구 5지역	박호흥
11월 6일(목)~11월 14일(금)	D	1교구 4지역	이부성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1월 10일(월)~11월 18일(화)	C	10교구 5지역	최지윤
11월 13일(목)~11월 21일(금)	D	7교구 4지역	장길남

※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1월 18일(화)~11월 26일(수)	J	8교구 10지역	최자은
11월 18일(화)~11월 28일(금)	G	2교구 9지역	김문섭
11월 18일(화)~11월 28일(금)	G	15교구 2지역	박미련
11월 19일(수)~11월 27일(목)	A	12교구 8지역	조문수
11월 20일(목)~11월 29일(토)	H	1교구 9지역	김용호

*선교 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기봉은 봉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⑥

삼비라와 같은 자들

만약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대 앞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랴고 했다면 그대는 어떻게 했는가?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가족들을 서로 쳐다보듯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 그처럼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어. 정말이야. 정말로!” 친구들, 부모님, 교회의 각 자제들을 만나 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였을 것이다. 그 상상이 된다면 그대의 집과 재산이 그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풍광에 있는 백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7장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직접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자신의 믿음에 대해 삼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계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승천을 실제로 보았고 실제로 본 사람들을 통하여 들음으로 실제로 본 것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 또한 스테반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보듯이 그들이 보지 못한 구약의 사건들 역시 설교를 통하여 듣고 나서 직접 본 것과 같이 그대 로 믿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재산은 큰 의미가 없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을에 한듯이 되어 모든 물건은 사서 공용하고 제 재물을 공유하여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행 4:32). 그들에게 의미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사”(행 4:28a)를 행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기도는 담대히 전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행 4:28). 그런데 이들의 모양이 좋아 보이고 그 좋아 보이는 모양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형성하자, 그들의 모양을 모방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바로 야나나야, 삼비라와 같은 자들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헌신하였다는 명성을 얻는 것이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그들은 믿음보다 자신들의 명성을 더 소중히 여겼다. 만약 그들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지금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출발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합적인 어떤 유구에서 출발했다.

우리의 단기선교는 어떠한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말은 직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닐까? 짐사나가 단기선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은 아닐까? 한번쯤은 다녀와야 인정받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닐까? 정말 믿음에 대한 반응인 한 번 돌아쳐보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출발했는지 돌아쳐보자. 그리고 꼭 자신이 삼비라와 같은 자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당장 끝판으로 달려가자.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 진정으로 단기선교를 갈 수밖에 없도록.

(권오섭)

스리랑카를 다녀와서

강 태 언 (원사, 5교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스리랑카에 보내주시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곳에 썩만 뿌리고 갑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10월 3일에서 5교구 5지역 선교팀원으로 스리랑카에 갔다. 믿음이 작고 자격도 없었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었다. 스리랑카어를 배우고 기도 모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나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면서 그만두고 싶은 맘이 간절했다. 나는 그 때까지 식기도도 소리 내서 해본 적이 없었고 성경을 마음먹고 한번 읽어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두려움이 더 커졌다. 그렇지만 팀 인원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 두려워서 못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는 부족한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팀원들이 고마울 뿐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명, 한명 모이다보니 우리팀은 고기는 고기대로 계란은 계란대로 버섯은 버섯대로 자기 맛을 내며 잘 만들어진 구절판처럼 색다른 맛을 내는 그런 팀이 되었다. 나도 여전히 두렵기는 했지만 팀원들을 보면서,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색다른 맛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갔다. 특히 나보다 어린 친구들의 믿음을 볼 때 나의 젊은 시절과 나의 자녀들과 비교가 되었고 나이만 먹었지 보여줄 것이 없어서 부끄러웠다.

스리랑카는 꾸밈없이 소박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나라였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대지처럼 기독교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문의 한이었다. 스리랑카의 국교는 불교이며 하나님과 부처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나면서부터 부처에 대해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부처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 전진했다.

내가 여행으로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과 맞닥뜨려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이었다. ‘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게 믿음이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동안 주님을 사랑도 했고 미워도 했고 주님으로 인해 가슴 벅차기도 했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기독교 학교에서 10년이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적이 없었다. 그런데 스리랑카를 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다. 처음에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기도가 늘어갔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에서 스리랑카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갔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그들에게 정말로 주님을 전하고 싶었다.

시작은 스리랑카를 위한 선교였지만 끝은 나의 구원이었다. 내가 온전한 구원을 알게 된 것이다. 복음을 들은 스리랑카인들도 주님을 알게 되었으리라 믿는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을 소망할 것이다. 그리고 살면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스리랑카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스리랑카가 아직은 영적으로 낙후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 나라이고, 나 역시 지금까지 주님을 알리고 하지도 잘 알지도 못했지만 이제 알게 되었고 계속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스리랑카에서의 선교활동을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이미 비슷한 내용의 많은 보고가 나와서) 더 많은 성도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동참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함을 만나길 바란다.

선교 헌신 예배 안내

2003년도의 선교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계속되는 선교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 헌신 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하오니 참석 대상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03년 11월 19일(수) 오후 7시(수소 2부 예배)
2. 장소 : 본당 예배실
3. 참석 대상 : 선교위원회 위원과 실행위원, 155개 팀의 팀장 및 팀원

선교에 뜻이 있는 성도

지난 주일설교 후기

조금 나아가서(마 26:39)

갯세마네 동안 한 복판에서 피와 땀을 쏟으시며 처절하게 무릎을 꿇으셨던 주님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추한 마굿간에서 나신 것이며 헤롯왕의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신 것이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신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겪으신 주님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대에서의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조금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나아가심으로 육체와 세상을 이기셨으며 사탄과 사함을 이기시고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이기시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감으로써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정리/박윤하)

충년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고대 로마 군인 정치 시절에, 십자가는 반역자, 살해범 등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극악한 죄를 다스리기 위한 도구였다. 그들을 십자가에 달아, 높은 곳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이와 같은 범죄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들의 참혹한 모습을 통해 경각심을 생기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거부감이 들게 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들은 치욕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즉각 해서 그들에게 죄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치욕스런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므로 인해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생겨났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엄청난 은혜로 받아들여졌다. 우선 십자가의 새로운 의미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 수 있다. 죄조물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속죄 양으로 삼기 위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우리를 위해 고개를 돌리시니까하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십자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의미로는 속죄를 들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주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므로 죄를 속하셨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리가 가까워졌으며 주님의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십자가의 의미로 '말씀 성취'이다. 원죄 발생 후, 예수님의 탄생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고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심까지 예언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많은 고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성립과 말씀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이로써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것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날에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가 사랑, 속죄, 은혜, 말씀 성취의 십자가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간들에 대한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 속죄, 은혜, 말씀 성취 등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올바른 의미가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윤경(장학)

청년 1부를 섬기며 ...

청년 1부 회장 김 옥



저를 일꾼으로 사용하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를 바라보면 감당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나를 전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분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셔서 이끄심을 믿기에 고맙게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들을 맡게될지 알겠지만 그분이 초청하신 자리이기에 오늘도 감내해 나아갑니다. 그분이 부탁하신 일을 한다는 생각에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베풀어옵니다. 앞으로 더욱 낙망하지 않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계속 되길 기도합니다.

청년 1부 부회장 조상인



부추한 저를 복된 일꾼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을 것을 쫓아 열중하고 힘을 쏟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추기께서는 저를 맡음을 통하여 진정한 힘이 있는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일기동안 훈련되고 성장하며, 남은 전 살 동안 내게 맡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 살아 가길 원합니다.

청년 1부 무회장 한세화



내가 혼자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하는 자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하시려고 부회장을 맡게주신 것 같습니다. 추복하신 자리라고 생각하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기준이 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지지 않도록, 오직 내 삶의 주관자이신 그 분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성령의 어려움

예수님은 성령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주셨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요 14:17).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 15:26).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요 16:14).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께서 신자들을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시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도의 모든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고, 신자들의 마음에 그 진리를 새기시며, 예수 그리스도도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것임은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이런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 같은 일이 가장 중요한 일로 이루어진다. 단순히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방언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기적을 행하거나 환상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의 십자가와 구원이 찬양하게 드러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이미 신자로서 사명을 역시 예수 그리스도도의 찬양에 사모함으로 부패한 살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게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하여 성령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된다. 이 때 집중은 단순한 구호나 안타까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집중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도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에 우리의 전 인격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집중이다. 18세기 미국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어떤 사람의 일기 중한 대목을 읽어보자.

"1737년 나는 건강을 위해서 말들 타고 숲 속에 가서 놀 하던 대로 한참한 곳에 내려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앉았었다. 그때 나는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그의 놀라운 능력과 그의 거룩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과 은사의 자비하신 겸손을 정할 무릇하게 보았었다. 그 때 나타난 은혜는 얼마나 고요하고 달콤했는지 천국보다 더 위대하게 보였었다. 그 때 나의 깨닫게 된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사상과 생각을 사로잡을 만큼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었고,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 한 시간 동안 계속 되었었다. 그 사이 나는 내 죄악과 우악한 행한 것을 눈물로 쓰고 통곡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었다. 내 영혼은 멀리 뛰었고 표현할 수 없는 열정에 사로잡혔고 오직 그리스도도로 충만해졌었다. 그리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여 의지하고 싶어, 거룩하게 되어 하늘의 거룩한 순결로 순결해지고 싶었다."

예수 그리스도도의 영광을 보는 이런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에게도 친숙한 일인가? 아. 예수 그리스도도의 은혜와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고 경험하며 살고 싶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자.

(이태복 목사·편찬)

청지기 훈련을 마치고

오 승 민 (원사, 1교구)

청지기 훈련을 통해 청지기의 참된 모습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번 훈련기간 동안 저는 저의 삶에 세상의 핏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핏방과 매를 맞아도 주님만 따라가며 세상의 명예와 권위에 타협하지 않는 청지기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에도 주님께서 천히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청지기 훈련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을 핏방하거나, 직분을 이용하여 순간순간 나의 노력과 의를 드러내려는 모습이 내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죄인에게도 찾아와 은혜의 빛으로 마음을 바쳐 주셨습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주님을 바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청지기로서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바울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찬송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주님, 영원한 천국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독 백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갱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취시기를 전히 여기사나이까"(욥 10:1-3).

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음을 시험하시는 과정에서 음이 한 고백의 구절 중 하나이다. 이것은 내가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차마 그냥 꺼질 수 없었기에 그저 연명하던 때에 하던 고백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집사님을 통하여 잘못된 가난한 나의 운명을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다. 삶의 의욕을 잃었던 나는 그 집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 그 집사님은 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내 시험하고 계신 거라고, 그러니 굳게 마음먹고 주님을 잊지 말고 병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앞에 걸려 더 이상 말씀을 나눌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나는 괜히 하나님께 율하듯이 치미어 울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나서 잊어버렸던 음의 고백이 다시 나왔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죄인들 중에... 문득 웃음을 바람에 날리고 한숨을 쉬어본다. 주님, 애절한 사람을 시험하시나이까. 자라리 당신의 말씀을 잘 안 듣는 나를 시험하시소서.

이렇게 음의 고백처럼 원망하다가 또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주님,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 나 같은 죄인도 주의 은혜로 살지 않는가? 주의 은혜 안에 없는 이 누구리요? 죄인 오라할 때에 날 부르소서.

손석진 (성도)

*손석진 성도는 병일 전도원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양육 받는 중입니다.

파킨슨씨 병으로 발이 썩어가고 있고 지난 수요일에는 발가락을 절단했습니다. 손석진 성도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아픔을 이기고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추수할 것 많은 계절

저 들녘 황금물결

화들짝 아는 가을

알알이 엮은 땀방울

겉실 맺는 오곡백과

창조주 두 손 펴사

농익은 가을 걷어.

풍년을 노래하는

추수할 일 많은 계절

주의 축복하는 은총이

온 누리에 퍼지면

풍요한 너른 그대 가슴

부족함이 없어야.

말 없이 드림니다.

내 정성 바칩니다.

낙담하게 넘쳐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온 마음 하나로 묶어

추수감사 드립니다.

김운식(집사, 아멘 찬양대)

♫ 다음 주일 찬송

312장 "모한 세상 주시고"

이 찬송가는 콘라트 코헤르(Conrad Kocher, 1786-1872)가 작곡하였다. 그는 뷔르템베르크 출신으로 후에 로마로 가서 음악을 공부한 후 독일로 돌아와, 독일의 교회 음악을 개혁하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슈투트가르트에 가서 교회 음악 학교를 세우고 4부합창을 일반화했다. 그는 오르가니스트요, 지휘자로 사역했다.

찬송가는 폴리오트 샌포드 피어포인트(Folliott Sanford Pierpoint, 1835-1917)가 29세에 썼다. 그는 고향 베스 부근에 있는 푸른 동산에서 꽃과 나무와 새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감동되어 이 시를 쓰게 되었다.

- 1절: 모한 세상과 아름다운 하늘 주시고 날 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랑 베푸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 2절: 아름다운 낮과 아름다운 밤이며 시간마다 보게 되는 아름다운과 산과 들, 나무와 꽃들이며 해와 달과 반짝이는 별들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 3절: 논과 귀를 즐겁게 하시며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시기와 창고가 모한 조화를 이루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 4절: 이 땅에서든 부모 자녀 애장고 형제자매 우애며 많은 벼를 주시사 사랑하게 하시고 하늘의 성도들과 교제케 하시며 온유하고 친절한 배려 베풀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 5절: 모든 나라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사람의 손결한 제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 6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인해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인해 예수님이 이루신 하늘의 기쁨과 이 땅의 평화를 인해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영문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찬연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와 대조하시면서 묵상하신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찬양위원회)

세 · 가 · 족 · 을 · 형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36	전태수	4	청년2부 김진욱(4)	1344	박상기	11	청년3부 최봉순(7)	1352	안숙택	19	청년1부 김인종(1)
1337	전태수	4	청년2부 김진욱(4)	1345	이복순	16	소방부	1353	여현숙	19	청년1부 김영성(9)
1338	이하진	6	청년2부 열명자(3)	1346	전정자	16	청년2부 김희영(10)	1354	배유경	19	대학부 김누영(17)
1339	손재현	11	청년2부	1347	이창기	19	청년2부 김진호(19)	1355	정희희	19	대학부 안성현(6)
1340	우승만	11	청년2부	1348	유원형	19	청년2부	1356	권진희	19	고등부 이희진(19)
1341	박원희	11	청년2부 문봉배(11)	1349	이승현	19	청년1부 심명재(19)	1357	이현우	19	대학부 조사부(9)
1342	이인재	11	청년2부 문봉배(11)	1350	신명재	19	청년1부				
1343	문봉길	11	청년3부 문봉배(11)	1351	허정미	19	청년1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충현 중창의 밤

오는 21일(금), 금요일 저녁 시, 11부 순서로 충현교회 11개의 중창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함께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 선교를 다녀와서

남미지 (중동1부)

나는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9박 10일 동안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다녀왔다.

방글라데시에 다녀와서 느낀 것이 참 많다. '복음 켜는 이란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정말 살기 어려운 여건을 가진 나라였다. 빈부의 차이가 엄청나서 수도에 위치한 집들은 화려하고 컸지만 조그만 벗이나면 습한 기후로 인해 곰팡이가 끼어서 꽤해 같았다.

첫째 날은 수소를 사기 당해 시장 한복판에서 자게 되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곳에서 전도자를 돌리며 전도를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갑자기 물러와 전도지를 서로 달라고 하였다. 나는 정신도 없고 무섭기도 해서 전도할 생각을 못하고 일른 빠져나왔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들을 전도했어야 했다.

방글라데시는 정말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그런데 하루는 사람이 없어서 왜 없냐고 물어보니 그 날이 이슬람교의 주일이라고 했다. 가슴이 아왔다.

다음 날은 외진 곳으로 가서 전도를 했다. 차에서 보니 산이 없었다. 그리고 나무가 있는 곳에는 마을이 있었다. 마을에 가니 우리를 대접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학교의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였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지 찢어진 옷을 입은 아이들도 많았다.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웠다. 하지만 더욱 불쌍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물러들어 사람을 모으기는 쉬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고전 2:4). 우리가 전도하고 온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길 오늘도 기도한다.

☆ 교사양성부 교육을 받으며 ☆

제8강 구원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많이 땅감받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살면 살수록 자신의 죄를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힘썼고, 시간이 갈수록 결모습은 더 온전히 행하였을 것임에도 자신은 죄인 중의 죄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수록 구원의 은혜가 더욱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무지와 고만을 없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한다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딤후 1:9).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히 5:9).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히 7:25).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의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눅 2:30).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은 보지 않으십니다(마 9:32, 눅 7:50, 행 16:30~31, 롬 10:9). 구원받은 이는 예수님을 좇아갑니다(마 10:52).

주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벧전 2:2).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벧전 2:12).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약 2:1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올바르게 배워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말씀하십니다(딤후 4:16).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 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고전 1:21).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막 8:35). 이 믿음으로 인하여 율법이 오지만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마 10:22; 24:13).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벧전 1:5). 이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라고 하십니다(벧전 1:9).

(황대원 기자)

의심

오지예 (소년부)



가끔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걸까? 하나님이 날 계속 지켜주시기나 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 주실까? 내가 지옥으로 가면 어찌될? 하나님은 왜 마귀를 안 혼내 주실까? 가끔, 아주 가끔은 예수님이 진짜 계시까하는 생각도 든다. 내가 좋아하는 애들은 다른 애들 좋아하느 것 같고, 우리 집이 갑자기 가난해지는 것 같다. 웬지 모를 불안감도 생기고, 귀신이 나를 쫓아다니는 것 같다. 한마디로 무섭다. 그리고 나랑 제일 친한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가끔씩 거짓말을 하여서 나를 곤란하게 만든다. 어렸을 때 그 친구에게 속아서 풀이랑 풀은 모두 먹어본 적이 있다. 그 애는 자기는 먹을 거라면서 슬쩍 버렸다. 그래서 나만 구두랄 뻔 한 적이 있다. 하나님은 그 친구의 성격을 안 바꾸어 주신다. 정말 궁금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기도를 했다. 하지만 금방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하늘나라 일꾼으로 만들어주시려는 거란다. 지혜야. 내가 좋아하는 예쁜 하얀 돌 있잖아? 그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인 줄 아니? 그것들은 동그랗게 되기까지 바닷모래 맞고, 비도 맞고, 우뢰와 다뤄도 참아야 한단다. 꺾이고 꺾여야 지 동글동글한 돌멩이가 된단다. 그리고 예쁜 보석들도 모두 꺾이는 고통을 받아야지 더 예쁜 보석이 탄생하지. 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를 더 훌륭하게 만들려고 꺾고 꺾으시는 거야. 친구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말야. 그래야 우리 지혜가 하나님의 멋진 일꾼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일꾼이야 하고 참아야지. 그리고 우리 지혜는 아직 어리니까 믿음이 작은 거야. 점점 크면서 너의 믿음도 커진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렴."

나는 그제서야 느낌이 왔다. 그렇구나. 나를 훈련받은 날렵하고 충성심이 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시구나.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심하다니. 나도 허드슨 테일러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굳센 믿음을 가진 어린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기도에 더욱 힘써 이런 훈련을 받아야겠다고 기도한다. 아멘.

주님을 즐겁게 하는 신앙생활

박선향 (유년부 교사)

나는 둘째 아이가 유아부를 다닐 때와 유치부를 다닐 때, 교회 집사님 몇 분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 찬양연습 중일 때나 성경학교, 학부모 간담회 때면 늘 그 집사님들의 밝은 얼굴을 볼 수 있어 참 좋았다.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냈다.

그러다가 나 위주의 즐거움 시간보다 하나님께 소중할 것을 드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유년부 교사생활을 시작하였다. 평소에는 낯선 사람에게 말도 잘 간다는 내가 섣뚱 주보를 나누며 봉사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린다.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었지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유년부 교사 생활. 타 교회에서 옮겨온 아이들, 부모님은 믿지 않은 가운데 자신들의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신임아이라 처음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에게 구원을 심어주고 기도하는 법, 예배드리는 법, 성경 드리는 법, 스스로 Q.T 하는 법을 설명할 때 참 즐겁다. 하지만 이 즐거움이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께 드러지는 즐거움임을 깨닫으니 더욱 감사하다.

한 명으로 시작한 우리 신임1반. 이제는 7명까지 늘어난 것을 보면 어제가 무거워지고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러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믿음이 더욱 두터워져가는 아이들과 사랑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싶다.

